

서민복식문화에 관한 연구(II)  
—경북 금오산 주변지역의 민속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홍 나 영 · 이 은 주\* · 임 재 영\*\*

시립 인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생활학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한성대학교 이공대학 의류직물학과

A Study of Folk Costume Culture(II)  
— Field Research Around the Mt. Kumo Area —

Na-Young Hong · Eun-Joo Lee\* · Jae-Young L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Inch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sung University

(1994. 9. 26 접수)

**Abstract**

The authors study on the traditional textile production and the formal dress through the field research concerning the folk attitude toward dress style around the Mt. Kumo area.

In this area, people produced and wove hemp, cotton, and silk except ramie. Because of poor production of raw materials, they produced textiles only for self-sufficiency. Every household dealt with dyeing on a small scale. In the past, people dyed cloth naturally using plants as material. Natural dyeing, however, gradually changed into chemical one since the Japanese rule.

The formal dresses, which people wore on particular occasions such as the hundredth day after child's birth, the first birthday, and traditional holidays, were very meager due to poor living standards. People could not see the formal dresses with full decoration. Bride and bridegroom were the village-owned wedding dresses, and if they could not afford to, they simply put cloth on to remember the occasion.

People around the Mt. Kumo area, however, provided fully-decorated shroud and ritual robes to the level of other better-off areas. It seemed to be the result of influence of deep-rooted Confucianism in Gyeongsang province. This Phenomenon could be found in the folk dress style in other regions as well as the Mt. Kumo area in Gyeongsang province.

## I. 서 론

본 연구는 금오산 주변 지역의 민속조사 결과를 고찰한 서민 복식문화 연구 I에 연속된 것으로,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일반복식과 우장(雨裝)을 제외한 의례복식(儀禮服飾)과 전통직물 생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 내용과 목적, 조사일정 및 방법,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자료, 그리고 조사대상 지역과 지역적 특징은 전호에 이미 밝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첫번째 등장하는 사투리는 고덕체로 표기하고 그 용어에 대해서는 괄호안에 표준어를 표기하였다.

## II. 의례복식(儀禮服飾)

### 1. 백일복

특별한 백일복은 없었다. 백일에 백줄 누비 저고리를 입혔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더 구나 둘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특별한 백일옷이 있을리 없었다고 한다.

### 2. 돌복

돌 역시 그저 잊어버리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차리는 집에서는 까치옷(색동 소매가 달린 옷에 붉은 색 돌띠를 들렀다. 남아의 경우 복전을 썼고 여아는 희양<sup>1)</sup>(조바우)을 썼다고 사진도 찍었다.

### 3. 혼례복

'옷은 시집 올 때처럼'이라는 말이 있다. 평생 동안에 가장 옷 호사 하는 때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도 이 혼례 때만은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없던 시절의 혼례였기에 평상시보다는 나았을지 언정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 1) 신부복

##### (1) 우티

우티란 함에 넣는 혼인 때 입는 치마, 저고리 또는 치마 저고리 옷감<sup>2)</sup>을 말한다. 신랑집에서 혼수품으로 보낸 옷감으로 만들며, 신랑집에서 미리 옷을 만들어 보내기도 한다. 주로 새파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 또는 노랑 저고리에 분홍치마, 초록 저고리에 분홍 걸치

마에 옥색 속치마를 입었다. 즉 관례 벗김용 다흥 치마에 노랑(연두) 저고리를 미리 신부집에 보내 신부가 입고 오도록 하여 기호지방의 풍속<sup>3)</sup>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의생활이 빈한한 탓에 예복을 친정과 시집 양쪽에서 준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석된다.

진 저고리(진 저고리) : 빨강이나 남색 등의 한가지 색으로 회장을 두른 반회장 저고리가 많았다. 그 시절 유행에 따라 배색이나 회장의 종류가 달라졌다.

웃치마 : 혼례에 입는 치마를 웃치마라 하는데, 그 당시 새색시 치마로는 빨간 치마도 있었지만 분홍 치마가 유행했다고 한다. 빨간 치마는 시집살이가 고되다고 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색상의 변화도 유행으로 보인다.

(2) 속옷 서울 지역의 신부는 보통 분홍색 속저고리를 입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저 뽀얀색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따뜻한 시집살이를 하라고 솜을 두는데 여름 혼인일지라도 솜을 두되, 동정 밑으로 깃 고대에 솜을 약간만 넣었다. 깃 고대에 솜을 두는 것은 시집살이가 되니까 모든 것을 덮어 가지고 잘 살라는 뜻<sup>4)</sup>과 솜처럼 살림이 잘 일어나라는 뜻<sup>5)</sup>이 있다고 한다. 그 외 속옷은 평상복에서 언급한 것들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좋은 것들을 착용하였다.

##### (3) 원삼과 족두리

원삼은 원래 궁중의 예복이었으나 민가에서는 혼례 때 이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즉 초례 지낼 때 입었던 옷이다. 나삼(羅衫)이라고도 하였다. 파랑색(초록색) 바탕에 긴 색동 소매가 달린 큰 옷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활옷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원삼이 없는 민가에서는 개막한 집(벼슬한 집)에서 빌려거나 마을 단위로 보관해 두었다가 빌려 입기도 했다. 그것도 어려우면 빨간 치마감을 좌우 어깨에 걸치고 파랑색 저고리 감으로 띠를 하여 대신하였다<sup>6)</sup>. 이를 경남에서는 삼불과 중불이라 하였다. 또는 큰 옷 없이 분홍 치마에 파란 저고리 쪽 우티만을 입고 혼례를 치루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손 등에는 긴 손마개(드리는 수건)라는 흰 수건을 드리웠다. 이것은 한삼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족두리와 족두리 맹기(도토락 맹기)도 동네에서 빌려 썼다.

##### (4) 화장

일반화장 : 보통 혼인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장

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위에 복이 많은 여자가 '덩거리(덩어리) 박하분(박가분)'으로 얼굴을 뾰얗게 치장해 주었다.

**연지와 곤지**: 연지는 신부의 볼 양쪽에 둥글게 찍은 것을 말하며 곤지는 이마 가운데 찍은 붉은 점을 말한다. 우리 민속에서 붉은 색은 잡귀가 싫어하는 색이라고 여겨져서 경사스러운 혼례날 못된 악귀가 불지 못하도록 하는 방책인 동시에 장식이었다. 연지는 화장품으로, 곤지는 빨간 종이를 잘라서 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안 계시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히 이마에 찍은 곤지는 시아버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얼굴에 붙었던 곤지는 신방에 들어갈 때 떼어서 문틀 위에 붙여 두면 좋다고 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5) 기타

**장신구**: 귀달비(다리), 머리 꽈대기에는 청지, 금봉채라는 비녀, 쪽두리 땡기 등이 사용되었다. '비녀 썰려야 어른'이라고 할 만큼 비녀는 혼인에서는 중요한 물건이자 장신구이다. 혼례용 거창한 비녀를 '금봉채(금봉채)'라고 했다. 보통 잘 사는 이는 은비녀, 못하는 사람들은 백동 납비녀를 했다. 멀점은 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리 혼하지 않았다. 연봉 쪽자미(쪽잠)도 있다고 한다. 쪽자미란 쪽에 꽂는 장신구인 뒤풋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버선**: 새색시는 꽂버선을 신었으나 간혹 여유가 없으면 광목이나 옥양목 버선 등도 신었다. 한편 새신랑도 꽂버선(타래버선)을 신었다고 한다.

신행에서 돌아와 친정에서 1년 정도 묵은 후 시집으로 돌아갈 때는 시댁 식구들의 웃을 해가는데, 특히 신랑 웃은 8-9새 삼베 중우(중의)·적삼, 세모시 두루마기 등을 해갔다고 한다.

#### 2) 신랑옷

초례청에서는 신랑은 신부집에서 해 준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 또는 도복(도포)을 입고 그 위에 관복을 입었다. 그 관복에는 쌍호 또는 쌍학 흥배를 붙였고 색상은 남색이다. 신부의 원삼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서 입었다. 관복 위에 '각대' 또는 '학대'(학정대를 학대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를 띠고 '장화'(목화)를 신었다.

#### 3) 혼례 봉재함의 내용물

부의 능력에 따라 혼수 물품은 달랐다. 잘 사는 집

에서는 예장지와 함께 신부의 이불, 은비녀(잘 사는 집의 경우) 또는 납비녀, 은반지, 링경(면경:面鏡), 화장품, 사철 웃감(봄·가을 3-5월, 노랑 저고리, 새파랑 저고리<sup>7</sup>), 분홍 치마감 등이 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당시 호박단 우티, 유뚱 우티, 숙수 치마 저고리감, 주세루 치마 등이 오면 혼수 잘 왔다고들 말했다. 혼수 물품이 많이 오면 이단(예단)도 많이 해가야 했기에 시아바이, 아바이 도포나 두루마기까지 해갔는데, 잘사는 집에서는 세루 두루마기까지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딸 서이만 두면 대문 열어 놓고 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딸 가진 집에서는 시침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혼례풍속은 여전한 듯하다. 반면에 못사는 집에서는 인조 저고리감 정도, 그것도 안되는 집에서는 그저 합방단으로 혼례를 끝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당시 패물로는 은반지가 최고였는데 쌍가락지를 많이 하였고 또 다른 은가락지 굽은 것은 손가락에 끼지 않고 저고리 고름에 노리개처럼 꽂아 사용했다. 특별히 다른 노리개는 없었다. 칠보장식의 나비 비녀는 쪽에 꽂으면 몽실몽실하게 예뻤고, 이 패물들은 며느리 보면 다시 물려주기도 했다.

#### 4. 수의

명주나 삼베로 운달에 준비한다. 운달에 여러 집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다. 돌아가신 뒤에 만들 땐 실 매듭 안 맺어 바느질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매듭을 맺어도 무방하다. 만들어 놓은 수의가 씀이 났으면 수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남자의 쟁우 적삼, 바지 저고리, 두루막, 주적삼, 도복(명주 5필) 등을 정만하고 여자는 속적삼, 속중우, 치마, 저고리, 원삼까지 소색 명주나 삼베로 만들었다. 그 전에는 색상이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원삼은 '영 시집간다'고 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보공품은 당신 옷만 넣되 시신의 상체에는 상의를 넣고 아랫도리 부분에는 하의류만 넣는다.

#### 5. 제복

제복이란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다. 남자는 깨끗한 바지, 저고리에 도복이나 두루마기 등을 갖추어 입지만 여자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사 복식은 없다.

## 6. 절기복식

### 1) 설빔(음력 1월 1일) :

설날 그믐에 여자들이 집안 식구들의 설빔을 준비하는데 고추 모양의 노리개를 만들거나 필낭, 또는 볼래기라는 주머니 모양의 장신구를 만들어 아이들의 둘째에 탈아주었다.

### 2) 삼짓날(음력 3월 3일) :

삼짓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 오는 날로서 집안에 간혀 살았던 여자들이 봄을 맞이 하여 치장을 하고 산이나 들로 나들이 가는 날이다. 이 날 친정 식구들도 자연스레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 3) 단오(음력 5월 5일) :

이 날은 '쟁피(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뎅기나 머리에 '궁기(궁궁이)'를 끊는다. 궁기는 향기가 좋아 사용했다고 하고 <동의보감>에 의하면 창포 냄새는 벼룩 등의 벌레를 퇴치하는데 쓰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풀은 머리에 윤기나 향기 이외에 이나 벼룩 같은 벌레들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III. 전통직물생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직물에는 삼베, 무명, 모시, 명주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직물은 천연섬유에 의해 얻어지므로 그 지역의 자연 환경에 따라 원료의 생산 내용이 달라진다. 즉 그 지역의 자연조건에 맞는 것이 생산되며 그 원료 생산에 따라 직물 제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오산 주변 지역에서는 생산량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마, 목화, 뽕나무 등을 재배하여 모시를 제외한 삼베, 무명, 명주 등을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전통직물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삼베는 서민들의 옷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런 만큼 생산량도 다른 것에 비해서 많았다.

직조 기술은 특별히 기관을 통해 교습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들이 하는 것을 어깨너머 배우면서 익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길쌈 기술의 습득시기는 10세 미만이 27%, 11-15세에 45.2%로서 대부분이 15세 이전이라고 하는데<sup>8)</sup> 이 지역에서도 9세 때에 이미 삼베 짜서 적삼을 만드셨다는

분이 있었다. 또 시집와서 배웠다는 분도 있었는데, 16세에 시집 온 박모분 할머니(76세/'93년, 수첩동)는 젊었을 때 시아버님이 만들어 주신 베틀과 시어머님으로부터 배운 직조기술로 삼비(삼베), 명비(무명), 명지(명주) 등을 틈이 나는대로 짚다고 한다. 대체로 길쌈은 10대에 배웠다는 분들이 많았다.

'길쌈 직접 안하면 입을 옷이 없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들이 벗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바삐 길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시대 이후 간혹 옷감 장사가 동네에 들어오면 구입하거나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했지만 길쌈은 여전히 여성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는 직조하는 이도 없을 뿐 아니라 베틀 조차도 사라졌다. 혓간 구석에 해체시켜 방치해 놓은 집도 있긴 하지만 [사진 1] 이미 30년 전에 직기를 불때서 없앤 집도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집에서는 직기가 사라졌다. 6.25 를 고비로 하여 대략 1960년대에는 각 가정의 직기가 없어지면서 자급자족용 직물 생산은 거의 막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 방치되어 있는 베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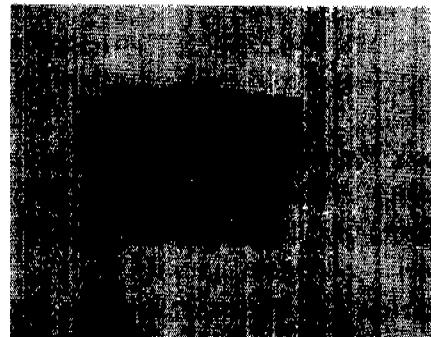
### 1. 삼비(삼베)

삼베 원료인 대마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이다. 카스 피해 연안에서 시베리아 남부, 키르기즈 초원지대, 또 페르시아, 북인도, 히말라야 등 넓은 지역에 야생하는 식물로서 원산지에 가까운 중국에서는 B.C. 7세기경부터 潤川, 湖北 地方에서 재배되었다. 그 후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로 전래되었다.

대마는 여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좀 있으면 高緯度地方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적으로 전국에서 삼의 생산이 가능하다<sup>9)</sup>. 금오산 주변 지역에서도 대마의 생산이 많았었다. 그러나 선산군의 <통계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1960-70년 사이의 구미 지역 대마 수확고는 점점 줄어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구미시 <통계연보>에서도 대마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 지역에서 삼을 키운다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생산량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70년대 초반 까지 금오산의 성내 마을에 거주하였다는 박세대씨에 따르면 성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작물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성내 마을이 '71년에 철거되기 전까지는 발 가장자리에 삼을 심어 종자를 받아 아랫마을에 내려와 팔았다고 한다.

서민층에서는 주로 삼베나 무명으로 옷을 해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삼베를 더 많이 사용하였기에 생산량 역시 더 많았다. 집에서 이루어진 길쌈은 대체로 자가 소비용인 것으로, 때에 따라 필요량이 달라지기도 했으나 평균 일년에 대여섯필씩 짜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각 가정의 베틀이 거의 없어졌고 따라서 옷감을 자가 생산하기 위해 길쌈을 하는 집의 수도 점차 줄어들어 갔다. 하지만 아직도 칙조 도구인 톱칼[사진 2], 술<sup>10)</sup>[사진 3]이나 도



[사진 2] 톱칼



[사진 3] 술



[사진 4] 바디

투마리, 바디[사진 4] 등을 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간혹 있었다.

자가 생산 외에 간혹 짚었을 때 전문적으로 삼베를 짠 분도 있었는데 조사 대상자수에서 그리 많은 수가 아니었다. 한 마을에 서너 집이 고작이었다. 베를 짜고는 죽식이나 현금, 또는 샷베를 받았고 그 댓가가 노력에 비해 그리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삼베 직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① 재배와 수확 : 논에 주로 재배했는데 穀雨가 지난 읍력 3월 하순 경에 파종한다. 마종나무 잎사귀 나오면 갈 때가 된 것이라고 한다. 여름내 키워서 읍력 6월 중순경부터 추석 전까지 수확한다.

② 삼삼기 : 삼을 익히는 것을 '삼우제' 또는 '삼우지'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몇 집이 함께 했다. 옛날에는 구멍이를 파서 나무를 많이 놓고 삼단을 크기에 따라 쌓은 후 구멍에 불을 지펴 돌을 달구어서 익혔는데 후일에는 마을 공용의 큰 삼가매(삼가마)를 장만하여 그 속에 2-3시간 끓여 도량의 시원한 물에 담구어 놓았다가 건져서 집으로 운반한다.

③ 껌질 벗기기 : 삼껍질을 톱칼(삼칼)로 삼아 가지고 세 번 정도 껌질을 벗긴다.

④ 삼떡우기 : 껌질 벗긴 삼을 섹 내기 위해 띄운다. 콩 깍대기 쟁물에 삶아서(찌서) 또는 쟁물에 담구었다가 씻어서 빈 방에 불을 때서 하루 정도 띄운다. 노랗게 색이 나면 말린다. 이 과정까지는 남자들이 도와준다. 이후의 과정은 주로 여성들이 전담하게 된다.

⑤ 삼째기 : 색깔이 잘 바랜 삼을 가늘게 찢어서 무릎 위에 놓고 비벼서 잊는다. 낮에는 주로 일하고 저녁에 주로 삼을 쪘다.

⑥ 삼날기 : 실 꾸리를 만들어 주로 돌굿<sup>11)</sup>에 올려 삼을 바다 수에 맞추어 10개의 떡(무더기)으로 나눈다. 10개의 떡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8회 반복해서 감아 날실을 완성한다. 오전에 두 필을 날아 하루에 4필 정도 난다.

⑦ 배매기 : 밀가루와 된장 참깨잎을 넣어 끓인 풀<sup>12)</sup>을 솔에 묻혀 날실을 맨다(먹인다). 풀을 먹이면 삼털과 이온 매듭을 재울 수 있다. 풀은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내용물이 다르다. 밀가루 풀에 깻잎을 통채로 넣고 주물러서 실에 풀을 먹였다고도 한다. 풀에 된장을

넣는 이유는 매끄럽고 거스름이 암일어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깨 잎 역시 실을 부서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이다. 실의 풀기가 마르면 도투마리에 감아 베틀에 얹는다.

⑧ 베짜기 : 가을이 되면 짜기 시작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부터 밤새 옷을 짰다. 겨울까지 계속 짠는 경우도 있었지만 9월에서 10월에 걸쳐 가장 많이 짠다. 한 필을 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정치 않다. 주야로 짜는 속련자는 사나흘이 걸렸다고 한다.

## 2. 명비(무명)

무명을 만드는 목화의 재배조건은 기온과 강수량에 있어 모두 까다로운 편이다. 생육 적온은 25°C이며 연 평균기온 15°C 내외에서 파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수량은 생육 초기에 비교적 많아야 좋으나, 개화, 성숙기에는 비 바람이 적고 일조량이 많아야 면실(綿實)의 양과 질이 좋다. 특히 서리에 약하므로 무상 기일(無霜期日)이 길수록 좋으며, 재래면인 경우 150일, 육지면인 경우 210-220일 이상이 필요하다. 중부 내륙 지방 및 북부 지방은 무상 기일이 부족, 발아기의 저온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농사법의 개량, 시만시기(施肥時期)의 선정 등으로 자연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재배 지역을 북으로 확장시켰다<sup>13)</sup>.

조선시대 면화 재배가 보편화되면서 면포는 의료로서 조선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조선 초기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으로 크게 발달하였다. 한편 1899년 육지면은 1904년 목포 대안 고하도(高下島)에서 시험적으로 재배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원면 공급지화 하려는 목적으로 육지면을 도입 전파한 것으로, 기후에 맞고 경제성이 높은 육지면은 재배면을 대신하면서 면작 지역을 확장하였다. 1904년 경에는 함남을 제외하고 거의 전국의 면작 지역의 90% 이상이 육지면으로 대체되었다<sup>14)</sup>.

금오산 주변 지역에서는 면화 또는 목화를 명이라 하고 그것으로 짠 옷감을 명비 또는 명베라고 한다. 칠곡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면화의 생산량은 삼베와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까지 적으나마 일정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재배된 명은 일모작 작물로서 깨 씨와 혼합해서 뿌리거나 보리 한 곡, 명 한 곡을 번갈아 심는 간작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면담자 중에는 근래에 목

화를 생산한 이는 없었다.

① **파종**: 곡우 무렵 파종한다. 파종 전에 오줌이나 물, 재 등에 명씨를 버무려서 뿌리는데 이렇게 하면 그 자체로 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명씨에 붙어 있던 실이 오그라들어 씨 뿌리기가 편리하다고 한다. 깨와 함께 뿌려 혼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 **발매기**: 목화는 잎이 드물게 나기 때문에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헛골에 잡초가 잘 자란다. 따라서 수차례 발매기가 필요하다. 보통 7월 중순까지 밭을 맨다.

③ **순자르기**: 꽃이 피는 8월에 한다. 묘목이 틀툭해지고 수확량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순을 자른다. 일찍 자르면 잔 가지가 많아지고 늦게 자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르는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

④ **수확**: 추분 무렵부터 10월 말까지 수시로 채취한다. 상장 이후 수확하면 서리를 맞아 누렇게 변색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저하된다고 한다. 이런 솜은 이불 용 솜에 사용하거나 빽빽하게 짜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수확한 후 동짓달까지 실을 탄다.

⑤ **씨앗기**: 목화 송이를 따서 말린 후 쪄기(씨아)를 풀어가며 매겨서 목화 씨와 목화 솜을 분리 시킨다.

⑥ **솜타기**: 대나무로 만든 활의 줄을 뒹겨가지고 활로 솜을 탄다. 이를 '명탄다'고 한다.

⑦ **실잣기**: 고운 것은 가늘게 비비고 굵은 것은 굽게 비벼 둥개(물레)를 돌려서 실을 짓는다.

⑧ **명날기와 씨기**: 물배로 것은 실은 삼베와 같은 방법으로 배를 날아 쌀풀을 먹인 후 왕겨 태운 결불에 말린 후 도투마리에 말아 베틀에 얹는다.

⑨ **색내기**: 옷감이 다 짜지면 쟁을 빙아 삶아서 뾰얗게 바래서 마무리 한다.

이러한 명비 외에 '뚝뚝목화' 즉 벌레 먹고 나쁜 솜으로 찬 '별떡베', '별떡베 7새'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나쁜 목화는 솜으로 사용하거나 고물로 싸게 팔기도 했지만 옷감도 만들었는 바, 그 옷감은 곱지 않아 폭력하고 또 실이 약하여 잘 떨어졌기 때문에 회색이나 검정 물을 들여 머슴이나 머느리의 의복에 사용하였다.

### 3. 명지

명주는 면이나 삼베에 비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용 의료로 사용되었지만 고급이었기 때문에 민가에서는 그리 쉽사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금오산

주변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삼베나 무명과는 달리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

뽕나무는 우리나라에 넓게 분포하지만 북부 지방보다는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었다. 뽕잎이 가장 잘 펴지는 시기는 남부 지방은 5월, 중부 지방은 5월 중순, 북부 지방은 6월 상순이 된다. 누에를 기르는데는 먹이가 되는 뽕잎이 중요한데 중국 화남지방에서는 1년에 7-8회 쇠청(催青)이 가능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 2회에 한정되어 있으니 그리 유리한 환경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명주실을 만들 누에는 7.5-37°C 이내의 온도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최적 온도는 20-28°C의 기온과 69-90%까지의 습도를 요한다. 그러나 실내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의 조절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sup>15)</sup>.

한편 조선시대 이후 양잠이 장려되면서 곳곳에 잡업과 관련된 지명을 가진 곳이 있는데 이 곳의 부상(扶桑)이 그렇지 않은가 여겨진다. 금릉군 남면에 부상이라는 마을이 있다. 부상리란 본래 '거대한 뽕나무'라는 뜻이라고 한다. 부상이란 중국 고대 태양과 관련된 신화에 나오는 성수(聖樹)의 이름으로 약목(若木), 부목(扶木)이라고도 하는데, 해가 떠오르는 동방에서 자란다고 한다. 그 나무가지에는 열 마리의 金鳥가 서식한다<sup>16)</sup>고 하니 금오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흥미로운 지명으로 보인다.

이 지역 부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누에를 많이 키웠던 흔적이 있다. 누에를 먹여서 고치를 팔기도 했고 옷감을 짜기도 했다. 누에를 먹이지 않았으나 파는 고치를 짜서 명주를 많이 짜서 팔았다고 하는 나첨순 할머니는 7월에 삼베 해놓고 햅고치 나도록 명주를 짰다고 한다. 1년에 서너필씩 짜서 아들 공부시키고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그 곳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오보 1동(갈항)에도 비교적 양잠이 성행했었다고 한다 통창 김종수씨 댁에서는 직접 네 잡색 양잠을 하여 명주비(명주베)를 짰다고 한다. 그러나 10년 전부터는 잡업을 그만 두었기에 뒤 뜰 쳐마 밑에 그 때 사용하던 잡박(蠶箔) [사진 5]을 가지런히 쌓아 놓고 있었다. 성내 마을에서도 衣料用으로 누에를 쳐서 그 고치를 내다 팔았다고 한다. 철거될 '71년 당시 5년생 뽕나무가 4천 주나 있었고 함석으로 잡실을 치어 양잠을 했으니 평지보다 1개월 가량이 늦어 춘추잠 1회로 거두어 추석 전에 고치를



[사진 5] 잠박

한번 팔았다고 한다. 상품이 아주 좋았다고 한다.

명주 제사 과정이 삼베나 무명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여 쉽기는 했지만 실이 가늘어 잘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필 짜려면 일주일은 걸렸다. 직물 자체가 고급이었기 때문에 서민 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도, 많이 생산할 수도 없어서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에만 짰고 많이 짜는 집은 주로 내다 팔기 위한 것이었다. 봄 누에는 6월 쯤 실을 뽑아 옷감을 짜는데 명주 날기에는 쌀풀을 사용했다고 한다.

#### 4. 기타 의료

나점순 할머니(74세/'94년, 금릉군 남면 오봉 2동, 부상)는 백갈포를 8세나 9세 정도로 짰다고 하는데, 왜삼(倭杉)으로 짠 직물이라고 한다. 백갈포(白葛布)란 백색의 갈포를 말하는 것으로, 흙의 섬유로 짠 옷감을 갈포라 한다. 언뜻 요즘의 갈포 벽지를 연상하기 쉬우나 옛날의 갈포는 모시나 삼베처럼 올이 가늘고 고운 것이었다. 고급 갈포를 썰 때는 헉을 삶거나 찌지 않고 생으로 물에 불려 깁질을 벗기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짠 갈포는 눈처럼 희고 반짝반짝 윤이 나 옷감 가운데서 최상품으로 찾고 값도 비쌌다고 한다<sup>[17]</sup>.

#### 5. 염색

조사 대상자들이 어렸을 적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염료로 염색을 했지만 일제시대 이후 일본을 통해 들어온 화학염료가 천연염료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였다. 그 후론 양단이나 호박단, 모본단 등의 이미 염색된 옷감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염색을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자주 천연 염료를 사용한 염색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술(외소나무)로 붉은 빛을 들이기도 하고 새색시 분홍 치마는 잇꽃으로 물을 들이기도 했다. 또 치자 말린 것을 더운 물에 담그면 노랗게 물이 우러나는데 명주를 들이면 색깔도 좋고 오래 입을 수 있어서 즐겨 사용하였다. 꿀밥(도토리) 겉은 것으로 명베에 진하게 들이면 진밤색이 되었다. 쪽으로는 남색 물을 들이기도 했다. 술에 물은 숯 검정으로 겉은 색을 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시장에서 만들어 놓고 파는 염료가루나 방물장사가 가지고 다닌던 염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밭물<sup>[18]</sup>장사에게서 밭물을 사서 검정 물을 많이 들었다고 하며 그 외 회색, 국방색도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아이들 옷에는 화려한 색상을 많이 사용하여 초록, 노랑, 빨강 등의 염색도 했다. 구입한 염료가루는 물에 잘 풀어서 소금을 약간 넣고 잘 섞어 그 물에 옷감을 넣고 푹푹 삶았다. 입던 옷도 물이 날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염색하기도 했다.

### IV. 결론 및 제안

이상과 같이 경북 금오산 주변 지역의 민속조사 결과 중에서 의례복식과 전통직물생산에 관한 내용을 살았다.

의례복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복식의 규범이 발달하지 못하여, 일반 복식과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낮은 경제적 수준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적 위치로 인하여 격식을 제대로 갖춘 의례복을 보기 어렵웠고, 따라서 옷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다. 한 두가지의 의복이나 의복감으로 예복을 대신하였다. 하지만 수의나 남자들의 제복은 다른 지방과 같은 격식을 갖추었는데 이는 경북 지방에 깊이 뿌리 내린 유교사상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경북 금오산 지방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택치 못했던 서민 복식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직물의 생산면에서 볼 때, 이곳에서는 저마를 제외한 삼, 목화, 양잠의 생산과 직조가 모두 이루어졌다. 특히 삼국시대이래 서민의 의료로 사용되었던 갈포가 근래까지 이곳에서 직조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직물 생산의 기본이 되는 원료의 생산량이 많

지 않아, 그저 자가 생산 위주의 소규모적인 직물 생산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특정 직물의 전문적인 생산이라든가 독특한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하는 등의 특징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의 양상이며 조선시대에 수공업을 천시 여겼던 결과라고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갖게 된 민속복식 연구에 관한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한국복식은 삼국시대 이래로 한반도 내에서 복식의 기본형에 공통점을 유지해 온 것이 강조되었고, 상대적으로 각 지방의 민속복에 관한 관심은 미흡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풍속과 마찬가지로 기호 지방과 호남, 영남, 영동 등 각 지방의 독특한 의생활 풍속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복식생활 풍속은 서구화와 더불어 노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복식 풍속에 관한 민속조사<sup>19)</sup>가 좀 더 상세히 각 지방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 복식의 비교 연구가 해해져야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연구 조사의 주제가 지금까지의 전통 복식생활에서 벗어나 복식의 서구화 과정<sup>20)</sup>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면담자의 대부분이 서구화된 머리 모양이나 의복을 착용하였으며 전통복식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 이에 관한 민속조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서구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서민들의 삶의 모양과 방법 그리고 삶의 의미와 원리를 찾을 수 있고, 이는 앞으로의 복식생활의 미래적 지표를 제시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논문을 위한 면담에 협조하여 주신 금오산 주변 지역민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이신 윤숙경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미주 및 참고문헌

- 1) 희망 즉 휘양이라고는 말하지만 그 형태는 조바위를 말하는 것이었다.
- 2) 경상남도에서도 우터라고 불렀는데, 힘에는 푸른색 치마와 붉은 저고리 간의 중불과 붉은 치마와 초록 저고리 간의 상불을 넣었다고 한다. 홍나영, 경남지방의 혼례복에 관한 민속조사, 인천대학교논문집, 제18호, 89, 1993.

3) 기호지방에서는 힘에는 청, 홍 색의 치마감 두벌 반을 넣고, 신부는 친정집에서 만든 치마저고리에 원삼을 입고 혼례를 치른 뒤, 삼일후 친행을 간다. 신랑집에서는 다홍치마에 저고리 삼작을 신부의 폐백 후 입힌다.

- 4)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일지사, 294, 1988.
- 5)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17책,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322, 1986.
- 6) 이와 같은 풍속은 경남지방에서도 있다. 홍나영, 89-90.
- 7) 새파랑색을 배추색이라고도 하였다. 대개 초록빛이 도는 빛깔도 모두 파랑을 지칭하였다.
- 8) 檻內卓, 李朝末期의 農村織物手工業研究, 嶺南大 產業經濟研究所, 34, 1969.
- 9) 김연우,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17-218, 1985.
- 10) 강원도에서 배풀 짤 때 사용하는 솔은 산에서 나는 험역개 덤불과 술풀이라는 식물의 뿌리를 캐서 만드는 것이다. 이 솔은 밥을 엎어 먹기 위해 거지들이 만들어 오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필경은 하나의 특허처럼 그들만의 전담 상품이 되었다고 한다. 인병선, 풀문화, 대원사, 92, 1991.
- 11) 안동 지역에서는 '돌것' 또는 '돌곁'이라고 부른다. 등근 돌에 43cm 직경이 3cm 정도 길이의 나무를 꽂아 실을 걸게 되어 있다.
- 12) 안동지역의 한 집(안동시 송천동, 금복남 할머니, 66세/94년)에서는 삼베 1필에 '보릿가루+좁쌀+메밀+된장+물 3되'로 풀을 만든다고 한다. 밀가루를 쓰는 집도 있고 쫄쌀만 쓰는 집도 있다. 계절에 따라 풀의 배합이 달라진다고 한다.
- 13) 전계서, 221-222.
- 14) 전계서, 225.
- 15) 김연우, 전계서, 225-277, 1985.
- 16) 何神(洪壽 역), 神의 起源, 서울, 동문선, 146-150, 1993.
- 17) 인병선, 풀문화, 대원사, 65, 1991.
- 18) 쪽으로 절은 겉은 빛을 면 남빛으로 염색한 것. 쪽으로 염색을 할 때 냉수에서 염색한 단색(淡色) 남은 '쪽빛'이라 하였고, 젖물로 환원시켜 짙게 염색한 것은 '반물', 첨전남(青黛)으로 염색한 농남색은 야청 또는 아청이라고 하였다. 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권, 145, 1989.
- 19) 1986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의생활 전반에 관한 민속종합조사가 1차 이루어진 바 있다.
- 20) Sunae Park, Patricia Campbell Warner & Thomas K. Fitzgerald, "Adoption of Western-Style Dress by Korean Women, 1945-62",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ume 11 No. 3, 39-47, 1993.